서사문

ジョジブン

正岡子規

주근옥 역

서사문(叙事文)

마사오카시키(正岡子規; まさおかしき)[1)]
朱 根玉 역

1

문장의 재미가 여러 가지 있지만, 옛글의 우아하고 아름다운 언어 용법에 따른 언어의 장식을 주로 하는 것은, 여기서는 사용하지 말 것. 자칫하면 작자의 이상 등 기교를 부리는 취향의 진기함을 주로 한 글을 사용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사용하지 말 것. 여기서 언급하고 싶은 것은 세상에 나타난 사물(자연계 및 인간계에)을 묘사해서 재미있는 문장을 만드는 것이다.

혹은 경치와 인간사를 보고 재미있다고 생각할 때, 그것을 문장으로 직접 만들어 독자와 자신과 함께 느끼게 되는 것은, 언어를 장식하지 않고, 과장하지 않고, 단지 있는 그대로 본 그대로 그 사물을 묘사하였기 때문인 것이다.[2)] 예를 들면, 스마(須磨; すま)[3)]의 경

---

1) 마사오카시키(正岡子規; まさおかしき; 1867~1902): 일본의 시인, 일본 국어학 연구가이다. 하이쿠(俳句; はいく), 단카(短歌; たんか), 신타이시(新体詩; しんたいし), 소설, 평론, 수필을 위시해 많은 저작을 남겼으며, 일본의 근대 문학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메이지 시대를 대표할 정도로 전형이 될 만한 특징이 있는 문학가 중 일인이다. (역자주)

2) 마사오카시키(正岡子規; まさおかしき)는 여기서 수사의 사용을 부정하고 있는데, 에즈러 파운드(Ezra Pound)도 "와동주의(Vorticism; 1914)에서 동일한 언급을 하고 있다. 즉, The other sort of poetry is as old as the lyric and as honourable, but, until recently, no one had named it. Ibycus and Liu Ch'e presented the "Image." Dante is a great poet by reason of this faculty, and Milton is a wind-bag because of his lack of it. The "image" is the furthest possible remove from rhetoric. Rhetoric is the art of dressing up some unimportant matter so as to fool the audience for the time being. So much for the general category. Even Aristotle distinguishes between rhetoric, "which is persuasion," and the analytical examination of truth. As a "critical " movement, the "Imagisme" of 1912 to '14 set out "to bring poetry up to the level of prose." No one is so quixotic as to believe that contemporary poetry holds any such position. . . . Stendhal formulated the need in his De l'Amour:-(또 다른 종류의 시는 서정시만큼 오래되었고 그것만큼 고결하지만, 최근까지 아무도 명명하지 않았다. 이비쿠스(Ibycus)와 나의 시 유철(劉徹, Liu Ch'e)은 '이미지'를 나타냈다. 단테는 이러한 능력으로 위대한 시인이 되었고, 밀턴은 그것의 결핍으로 다변가가 되었다. '이미지'는 수사(rhetoric)와는 아주 거리가 멀다. 수사는 눈앞

치를 언급할 때,

산수가 맑아 뛰어나게 아름답고, 특히 공기가 청결해서 기후의 변화가 적고 요양 손님의 병을 저절로 낫게 한다.

등으로 쓰는 것은 아무 재미도 없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스마(須磨)는 후에 하리마나다(播磨灘; はりまなだ)[4]에 접한 작은

의 청중을 속이기 위하여 보잘것없는 것을 겉치장하려는 술책이다. 일반적 범주를 위해서는 그것으로도 충분하다. 아리스토텔레스도 "계략적 설득으로서의 수사"와 진리의 분석적 고찰을 구별하고 있다. 1912년에서 1914년까지의 "임계적(critical)" 활동은 시를 수사가 없는 산문의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오늘날의(contemporary) 시가 그러한 수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믿는 다시 말해서 돈키호테적 공상을 소유하고 있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스탕달은 그의 소설 '연애론'에서 산문의 필요성을 형식화했다.). (역자주)

3) 스마(須磨; すま)는 옛 셋쓰노 쿠니(摂津国; せっつのくに)의 지명. 현재 효고(兵庫; ひょうご) 현 고베시(神戸市; こうべし) 스마(須磨; すま) 구. (역자주)

4) 하리마나다(播磨灘; はりまなだ): 세토나이카이(瀬戸内海; せとないかい) 동부、아와지시마(淡路島; あわじしま)와 쇼우도시마(小豆島; しょうどしま) 사이에 있는 해역. 1. 아와지시마(淡路島; あわじしま); 일본 세토나이카이(瀬戸内海) 동단부에 있는 섬. 일본 제3의 큰 섬으로 행정상 효고현(兵庫縣)에 속한다. 중심 도시는 스모토(州本; すもと)이다. 아와지는 아와지 섬 전역을 차지했던 국(國: 일본의 지방 행정 단위)의 이름이다. 혼슈(本州; ほんしゅう)로부터 시코쿠(四國; しこく)의 아와(阿波; あわ; 지금의 도쿠시마 현)에 이르는 길이라 해서 아와지

(阿波路; あわじ)라는 이름이 생겼다고 한다. 아와지 섬은 남북으로 가늘고 긴 삼각형 모양의 지괴(地塊; ちかい; 사방이 단층면으로 한정된 땅덩어리)로 되어 있다. 북쪽은 아카시 해협(明石海峡), 남동쪽은 토모가시마스이도우(友ケ島水道; ともがしますいどう), 남서쪽은 나루토(鳴門; なると) 해협으로 혼슈, 시코쿠와 나누어진다. 북부의 쓰나(津名; つな) 구릉, 남부의 유즈루하(諭鶴羽; ゆづるは) 산지 사이에 아와지 평야가 있다. 기후가 온난하며 집약 농업이 발달하였는데 쌀・보리・양파・감귤・화훼 재배가 성하다. 2. 小豆島(しょうどしま); 면적 약 153.30㎢이다. 해안의 총길이가 126km에 이른다. 일본에서 처음으로 올리브를 성공적으로 재배해서 올리브섬(Olive Island)이라고도 알려져 있다. 가가와현(香川縣; かがわけん)에 속하며 현의 수도인 다카마쓰(高松; たかまつ)의

공지의 소나무 숲이 있어 그곳에 여관과 별장이 있다. 모래가 하얗고 소나무가 푸르러 실로 청결한 느낌이 든다. 바닷물도 깨끗해서 해수욕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다. 아쓰모리(敦盛)[5]의 무덤은 서스마에서 서쪽 방면에 있고 그 앞에 소위 아쓰모리 소바가 명물로 남아있다. 스마데라(須磨寺)는…

등으로 쓰지 않았는가. 앞의 문장에 비해 정밀하게 묘사가 아니라 서술한 기분이랄까, 스마를 묘사했다고 치더라도 스마 경치의 움직임은 오히려 볼 수 없다. 그 위에 체재를 바꿔서

저녁 식사를 마치고 평소대로 훌쩍 숙소에서 나왔다. 불타는 태양의 그림자는 뒷산에 숨고 석양의 잔영은 시오야(塩屋; しおや)[6]의 하늘에 머물고 있다. 길가의 모래도 서둘러 열이 가라앉아 서늘한 솔바람이 불어온다. 좁은 땅에 별도로 신기한 곳도 없어 아쓰모리(敦盛; あつもり)의 무덤에나 갈까 생각하고 왼쪽으로 갔다. 아쓰모리(敦盛)의 무덤까지 한 마을 정도의 거리니까 곧 닿을 수 있지만, 처음부터 참배할 생각은 없었다. 그냥 큰 오륜탑[7]과 잠시 눈싸움할 정도다. 앞에 있는 향

북쪽에 위치해 있다. 기슭 간 최단 거리가 9.93m에 이르는 세상에서 가장 좁은 해협인 도후치해협(土渕海峡; どふちかいきょう)이 있다. 일본에서 국내 관광지로 인기 있는 곳이기도 하다. 도후치(土渕; どふち) 해협이나 칸카이협곡(寒霞渓; かんかけい)과 같은 아름다운 자연경관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생산되는 올리브, 야생 원숭이, 그리고 해변으로도 유명하다. 관광객들 사이에서 올리브 관련 상품은 관광객들에게 특히 인기가 있는 편이다. 그리스 밀로스섬(Milos)의 자매섬이다. 섬 이름은 말 그대로 "작은 콩의 섬"이라는 뜻이다. (역자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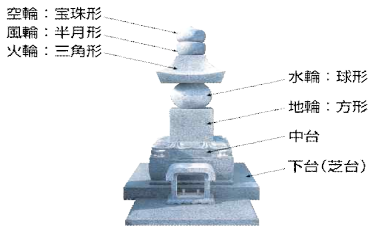
5) **敦盛(**あつもり)는 일본의 전통 연극인 노우(能; のう)의 공연 작품 중 하나로, 겐페이(源平; げんぺい) 전쟁 시기 다이라노 아쓰모리(平敦盛; たいらのあつもり)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겐페이 전쟁의 주요 전투인 이치노다니 전투(一ノ谷の戦い; いちのたにのたたかい)에서 다이라노 아쓰모리(平敦盛; たいらのあつもり)는 적장 구마가이 나오자네(熊谷直実; くまがい なおざね)와의 싸움 끝에 전사한다. 나오자네는 아쓰모리 또래의 아들이 있어서 그를 살려주려고 하나, 거절 당해 슬퍼하며 목을 잘랐다고 전해진다. 이를 계기로 나오자네는 인생무상을 느끼고 출가하였다고 한다. 센고쿠(戦国; せんごく) 시대의 주요 다이묘(大名; だいみょう) 였던 오다 노부나가(織田信長; おだのぶなが)가 즐겨 불렀던 것으로 유명하다. 노부나가는 세력 확장의 계기가 된 오케하자마 전투(桶狭間の戦い; おけはざまのたたかい) 출전 직전에 「아쓰모리」를 부르고 나가 적장 이마가와 요시모토(今川義元; いまがわよしもと)의 목을 베었다고 전해진다. (역자주)

6) 현 兵庫県神戸市垂水区塩屋町(ひょうごけん こうべし たるみく しおやちょう). (역자주)

꽃이의 야다이(屋台; やたい; 작은 집 모양으로 지붕을 달고 이동할 수 있게 만든 대) 같은 것을 손으로 두드리고 쓰다듬고 요리조리 보다가 그래도 흥이 모자라 다시 돌아가 돌변하여, 노(能; のう) 송풍(松風; まつかぜ) 속의 노래 "わくらはに問ふ人あらば須磨の浦に藻塩たれつゝわぶと答へよ(우연히라도 나를 찾는 사람이 있으면, 스마 해변에서 조염(藻塩; もしお)의 물이 방울방울 흘러내리는 것처럼 울며 외롭게 살고 있다고 대답해 주게)"[8]라고 입속으로 읊조리며 어슬렁어슬렁 다시 돌아왔다. 숙소의 문까지 왔을 때 해가 완전히 기울어 등불이 둘 셋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돌아가고 싶지 않아 문 앞을 그냥 지나쳤다. 가도(街道) 우측의 철로를 따라 움푹 팬 도랑이 있어, 그곳에는 작은 꽃들이 수북하게 피어 있다. 땅거미 속에서 꽃만 하얗게 보이기 때문에, 마치 많은

---

7) 五輪塔(ごりんとう): 1. 밀교에서 말하는 5대(五大)를 지칭. 원, 삼각, 반원, 보석의 형태를 상징하며, 그것을 아래에서 위로 탑 형태로 쌓은 것. 아래로부터, 지륜(地輪), 수륜(水輪), 화륜(火輪), 풍륜(風輪), 공륜(空輪)을 나타낸다. 나무, 금속 등으로도 만들지만 돌로 만든 것이 더 많다. 헤이안시대(平安時代) 이래 일본 석탑의 주류가 되었다. 원래 밀교계의 탑이지만, 가마쿠라(鎌倉) 시대부터 종파를 초월하여 이용되고 있다. 2. 地・水・火・風・空의 5대를 사각형, 원형, 삼각형, 반월형, 보석형의 돌 등으로 모양을 만들어, 차례로 쌓아 올린 탑. 헤이안 중기 경 밀교에서 창시되어, 다이니치 여래(大日如来; だいにちにょらい)를 의미했지만, 나중에 공양탑, 묘비 등으로 사용되었다. (역자주)



8) 1. 노우(能; のう) 松風(まつかぜ) 속의 와카(和歌, わか) 일수(一首). 2. 조염(藻塩): 해초를 바닷물로 적셔 솥에서 끓여 소금을 채취하는 것. 원문은 "わくらはに問ふ人あらば"만 있는데, 한 수 모두를 번역했다. 또 다른 한 수도 있다. 3. 이나바 산((因幡山/稲羽山/稲葉山; いなばのやま): 돗토리시(鳥取市, とっとりし) 동부에 있는 산. 높이 249m.

わくらはに問ふ人あらば須磨の浦に藻塩たれつゝわぶと答へよ.

우연히라도 나를 찾는 사람이 있으면, 스마 해변에서 조염(藻塩; もしお)의 물이 방울방울 흘러내리는 것처럼 울며 외롭게 살고 있다고 대답해 주게. ー在原行平

立ち別れいなばの山の峰に生ふる待つとし聞かばいま帰り来ん.

작별하고 이나바(因幡; いなば)에 가고 있는 몸이지만, 이나바 산(因幡山; いなばのやま) 봉우리의 소나무처럼 서 있는 나에게, 돌아오겠냐고 묻는다면, "곧 돌아가겠습니다." ー在原行平

아리와라노유키히라(在原行平, ありわらのゆきひら, 818~893): 헤이제이(平城, へいぜい) 천황의 아들 아보(阿保, あぼ)의 아들, 즉 손자. 平安(へいあん) 前期(전기)의 歌人(かじん) 아리와라노나리히라(在原業平, ありわらのなりひら)의 이복형. 몬토쿠 천황(文徳天皇, もんとくてんのう, 826년~858) 재위 850년 무렵에, 잘못을 범하여, 일시 스마(須磨)에 유배된 적이 있다. (역자주)

나비가 앉아 있는 것처럼 보인다. 도랑엔 물이 없어 아래로 꽃을 찾아 내려가 사오십 가지를 꺾었다. 그리고 물가에 나가 파도가 밀어닥치는 그 끝자락을 서벅서벅 밟으며 걸어갔다. 서늘한 바람이 사방에서 불어오고 있지만, 바람이라고 할 만한 바람이 불지 않아 바다는 아주 조용했다. 발걸음이 지친 채 조르르 조르르 겨우 때리고 있는 파도에 일부러 발을 적시며 잠시 멈춰서 깜깜한 난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다. 보고 있으면 붉은 점처럼 생긴 것이 아득히 멀리 보였다. 어화(漁火)가 아닐까 생각하면서 보고 있으면 붉은 점은 점점 큰 원이 되어 간다. 쟁반 같은 달이 드디어 바다 위에 나타났다. 잠든 것 같은 해면이 아련히 밝아왔다. 게다가 눈앞 해변의 바다가 어지럽혀져 불규칙하게 파도가 일어 혹시 배를 저어오는 것 아닐까 생각하며 보고 있는데 어휴 아니다. 몇 번이고 살펴보아도 의심스러웠지만 참았는데 조금씩 발걸음을 옮겨 뚫어지게 보니까 새하얀 사람이 움직이고 있었다. 그러나 매우 하얗다고 생각하고 잘 보면, 흰 기모노(著物; 着物)를 입은 두 소녀였다. 소녀의 유방 언저리까지 파도가 넘실거리고, 둥실둥실 뜨면서 소녀는 손끝으로 물을 젓고 있다. 휘저어 섞인 물은 작은 파도를 일으켜 반짝반짝 달빛을 받고 있는 것 같아서, 나는 망연히 그림 안에 들어간 기분이 들었다. …

이와 같이 작자를 토대로 작자가 본 것만을 본 것으로 기술하는 것은, 사물의 형편에 따라 흥미의 얕음과 깊음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독자와 작자가 같은 지위에 서 있는 효력이 있는 것, 작자가 혹시 스마에 있다면 독자도 같이 스마에 있는 것 같은 느낌, 작자가 혹시 눈앞의 미인을 보고 있다면 독자도 역시 눈앞의 미인을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은, 이 같은 사실을 세밀하게 서술한 글의 장점으로서, 이 글의 목적도 역시 독자의 동감을 끌어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ー日本付録週報　메이지(明治; めいじ) 33=1900. 01. 29(월).

2

연말연시의 의식풍속으로 연하장을 보내고 각지에서 보내오는 선물을 받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심심한 감사의 마음을 표시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 글의 체재는 개성적이지 않아 약간 평범하고 정취가 없는 것으로(無趣味) 빠져버리는 것이니 매우 유감스럽다. 풍속의식이 매우 달라 재미가 있을 때는 그냥 그 풍속의식을 개념적으로 기술하는 것도 기분의 재미있는 맛을 생기게 한다고 해도 여전히 건조함에 빠져듬을 면하지 못한다. 더구나 풍속의식에 약간의 정취가 있을 때 그것을 대략 기술하는 정도가 되는 것이니, 혹은 독자의 하품을 불러일으키게까지 이르게 되는, 예를 들어 사기쵸우(左義長; さぎちょう) 또는 돈도(爆竹; どんど)[9]를 기술하는 것이니,

> 우리 지방에서는 일월 모일 사기쵸우라고 하는 행사가 있다. 그 방법은 전날 아이들과 동반하여 집집마다 돌며 그 집의 장식을 모으는 등… 이튿날 아침 교외에 3칸 내지 5칸 가량 보이는 정도의 장식의 탑을 쌓는 등… 이것에 불을 붙이면 순식간에 화염이 하늘로 치솟아 마침내 탑이 붕괴되는 등… 이때 갖고 온 떡을 대나무 끝에 끼워 그 불 속에 넣고 구워 먹는, 운운…

등으로 쓰는 것은 사기쵸우의 방법의 대부분을 알고 있는(이것은 지식 상에서) 것이라고 해도, 사기쵸우의 정취를 정말로 느끼는(이것

9) 左義長(三毬杖; さぎちょう): 정월 보름날에 궁중에서 행하는 악귀를 쫓는 행사. 민간에서 카도마쓰(門松; かどまつ) 따위 설날의 장식물을 불태우는 'どんど'에 해당하는 것. 爆竹(どんど): 정월 보름날 문 앞에 세워 놓은 카도마쓰나 대문 위에 매단 금줄(標縄; しめなわ) 따위를 모아 불태워버리는 행사. 또, 그 불로 구운 떡을 먹는 일. 門松(かどまつ): 새해에 문 앞에 세우는 장식 소나무(정식으로는 대나무를 곁들이고, 약식으로는 솔가지 하나에 금줄만 닮). (역자주)

은 감정 상에서) 것이 불가능하다. 이런 종류의 문체를 사용해서 쓰인 대동소이의 사기쵸우의 기사(記事)는 각지에서 전해져도, 선택하기 어렵고 마침내 어느 것도 게재가 불가능하다. 혹시 어느 한 사람이 일부러 사기쵸우를 보러 가서 그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쓰지 않는다면 반드시 재미있는 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

> …오늘 아침 구름이 한쪽으로 덮여 하늘은 여전히 눈이 올 기미를 보이고 있다. 들로 나가면 북쪽으로 보이는 산맥 한쪽이 눈을 뒤집어쓰고 그중 제일 높은 것은 00산이다. 그곳의 보리밭과 유채밭 한구석에 아직도 눈이 남아있다. 운운…
>
> 불은 점점 넓게 번지고 대나무의 튕기는 소리는 실로 거칠어지고 갑자기 산바람이 불어온다 생각하는 순간 불길이 끝까지 치솟아 올라, 순식간에 눈앞에서 한 개의 불기둥으로 나타났다. 운운…

이와 같은 체재로 쓰게 된다. 그러나 우리가 대규모의 사기쵸우라고 하는 것을 거의 본 적이 없다면 완전히 그것을 눈앞에 내놓을 수 없다고 해도 혹시 현지의 사기쵸우를 본 사람이 본 그대로 묘사해서 내놓는다면 반드시 사기쵸우의 불기둥이 독자의 눈앞에 당연히 나타날 것이다. 그렇다고는 하지만 이와 같은 작자 자신의 실경험을 묘사한다면 그 기사는 어느 일부에 한정된 것이며, 전체의 풍속의식을 모두 묘사할 수 없다고 하는 결점이 있다. 그러나 아름다운 글 곧 재미의 측면에서 본다면 전체를 묘사하는 것에는 추호의 결점도 없다고 보며, 오히려 어느 일부분의 실체가 눈앞에 나타나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공상과는 거리가 멀고, 실제의 느낌에 가깝게 된다.

어떤 사람이 칸고리(寒垢離; かんごり)[10]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다음의 예와 같이 “현지의 칸고리라고 하는 것은”이라고 하며

붓을 들어 쓸 때, 그가 어느 부류의 사람인가 하는 그 모습, 복장 등을 기술하게 된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재미가 없다. 혹시 칸고리를 위한다고 한다면 자신부터 현지에 보러 나가 그것을 묘사하여 내놓는 것과 같지 않다. 게다가 서두에 "붙이기" 등이 있어도 좋다. 예를 들어,

> 오늘 밤은 칸고리를 본다 생각하고 일부러 밖으로 나갔다. 달은 밝고 바람은 살을 에는 듯 불고 있다.

등으로 붓을 들어 쓰고,

> 얼마간 길거리에 서서 기다려도 칸고리하는 사람은 나타나지 않는다. 밤이 점점 깊어 가지만 지상에서 묘사하려고 하는 자신의 그림자는 작아지고 발바닥이 얼어붙듯 차가워진다. 멀리 개 짖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뺨에 좁쌀이 돋는 듯한 생각이 든다. 딸랑딸랑 하는 방울소리가 들렸다. 나타났다고 생각하고 그쪽을 보니 우동집(饂飩屋) 주인이 짐을 짊어지고 지금 돌아온 것이지, 칸고리하는 사람이 왔다고 하는 방울소리가 아니었다. 실망한 나머지, 꼼짝 않고 곁눈질하고 있다가 우동집 주인이 서 있다는 것을 알아채고, 뭔가 나쁜 자가 아닌가 하고 생각했는데 빠른 발걸음으로 지나가는 것 같았다. 느닷없이 "이봐" 하고 소리를 지르니 "네" 하고 놀라 응답하고 멈춰 섰다. "이봐, 우동 한 그릇 주게" 하고 말을 건네니까 그가 안심한 모습으로 짐을 풀었다. 달걀 우동을 냄비에 넣고서 "오늘 밤은 근래에 없던 추위이옵니다. 우리들은 불을 취급하는 장사꾼이옵니다만, 그것으로는 오늘 밤 견딜 수 없사옵니다." 등 판에 박힌 말을 하고 있다. "이봐, 이 근처에 칸고리

---

10) 칸고리(寒ごり・寒垢離; かんごり): 한중(寒中)에 냉수욕을 하면서 신불(神仏)에게 기원하는 일. (역자주)

하는 사람 지나가지 않았는가.”“예.”하고 의아한 듯 응답한다.“어떤 칸고리말이야 칸고리 녀석 이곳을 지나가지 않았는가.”“예, 00不動明王(ふどうみょうおう)[11]에 도착했습니다만 사람들이 한두 사람 지나갈 뿐입니다. 칸고리와 저희 젊은이들은 아직 폐물이 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칸고리 라고 하는 것 소용없사옵니다.…”

등 소용없다고 쓰고

딸랑딸랑. 하얀 기모노를 입은 한 사람이 나타났다.…

등 본론으로 들어간다. 이와 같은 서두 곧 서막도 장황하지 않은 한에서 재미가 있어야 한다고 해도, 있지 않은 것을 탁상 위에서 만들어 서두로 사용하는 것은 안 된다. 우리가 이곳에서 예로 쓴 기사도 혹시 현장을 보고 썼다면 몇 배의 재미의 맛이 증가함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日本付録週報　메이지(明治; めいじ) 33=1900. 02. 05(월)

3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실제 있는 그대로 묘사하는 것을 잠정적으로 사실이라고 한다. 또 사생(写生)이라고 한다. 사생은 화가의 언어를 차용한 것이다. 또는 허서(虚叙: 전에 概叙라고 한 것과 동일)[12]라고 한 것과 대비해서 실서(実叙)라고 해도 되는 걸까. 게다가 허서는 추상적 서술이라고 하는 것이며, 실서는 구상적 서술이라고 해도 가능한 것 아닌가. 요컨대 허서(추상적)는 사람의 이성에 호소하는 일

11) 不動明王(ふどうみょうおう): 화재를 등에 지고 무서운 얼굴로 오른손에는 검(剣), 왼손에는 적을 제압하기 위한 밧줄(羂索)을 갖고 있는 후도우묘우오우(不動明王)는 악마 제거, 재난, 병 제거의 수호신이다. (역자주)

12)“…只其風俗儀式を概念的に叙するも…”(역자주)

이 많으며, 실서(구상적)는 거의 전적으로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다.[13] 허서는 지도(地図)와 같고 실서는 회화와 같다. 지도는 지세를 대충 눈으로 보도록 하거나 어떤 한 장소의 경치를 보도록 하는 것이며, 동시에 유쾌한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은 회화와 같은 것이다. 문장(文章)은 회화와 같이 공간적으로 세밀하게 만들어지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도, 많은 조화(粗画; 대강 그린 그림: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다소의 정밀화(密画)를 만든다)를 매수와 상관없이 시간적으로 연속 만들어 내는 것은 그것의 장점이다. 그러나 보통의 실서적 서사문은 너무 오랫동안 연속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짧은 시간을 1초 1분의 작은 부분으로 끊어 세밀하게 묘사하고, 분초 단위로 변하는 모양을 연속적으로 만드는 것이 좋다.

실서는 사생(写生)이라고 하는, 사실(写実)이라고 하는 실제로 존재하는 그대로의 모양과 다름이 없다고 해도 물론 약간의 취사 선택을 요구한다. 취사 선택은 재미있는 곳을 취하고 재미없는 곳을 버리는 것이며, 반드시 대(大)를 취하고 소(小)를 버리며, 장(長)을 취하고 단(短)을 버리는 것에 있지 않다. 예를 들어 어느 장소에 가는 도정을 기술할 때

---

13) 허서(虚叙)와 실서(実叙)를 언어학의 측면에서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 '동물'이라는 의미는 '야생동물'과 '가축'을 포함하고 가축은 다시 '소'와 '양'을 포함하며 소는 다시 '황소'와 '암소'를 포함한다. 이것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동물
            ∧
        가축  야생동물
          ∧
        소  양
        ∧
    황소  암소
```

여기서 가축과 야생동물은 동물의 직접 하위성분이 되고 소와 양은 가축의 하위성분이 된다. 언어의 기능을 추상기능에 중심을 두고 설명하는 것도 이와 같이 어휘체계에는 상위개념과 하위개념 간에 유기적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최하위의 단계까지 내려가면 언어는 없어지고 사물 혹은 사실만 남게 된다. 이러한 의미의 계층적 대립관계를 A. Korzybski(1879~1950)는 추상의 사닥다리(abstract ladder)로 나타내고, 의미를 설명하는 경우에는 되도록 추상의 단계를 한 단계씩 낮추어 줄 것을 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유기적 관계를 상하관계(hyponymy)라고 하며, 이는 어휘소의 의미에 대한 계층적 구조로서 한쪽이 의미상 다른 한쪽을 포섭하거나 포섭되는 관계를 말한다. —주근옥, 한국시 변동과정의 모더니티에 관한 연구(서울: 시문학사, 2001), pp. 19~21. 참조하라. (역자주)

분명히 1번 기차에 타기로 약속했는데 00코(子)는 아직 그림자도 보이지 않는다. 선례가 있는 잠꾸러기, 골치 아픈 물건이다, 라고 투덜거리며 △△코(子)와 함께 표를 끊고 기차에 올라탔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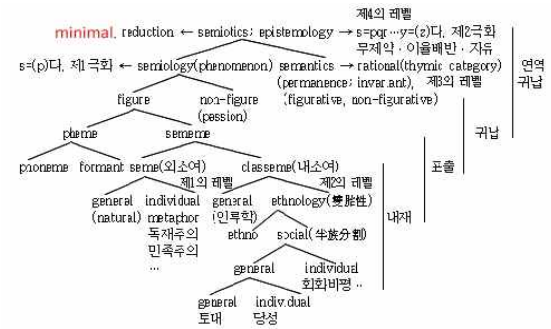
이와 같은 상태의, 어떤 재미있는 맛도 없는 것을 길게 쓰는 것은 좋지 않다. 약속했던 친구가 오지 않는 것이, 그 사람의 마음에는 현저하게 영향을 주는 것이 될지라도 독자에게는 아무런 느낌도 일으키지 않는다. 혹은 밥 먹는 것을 상세하게 기술하는 것 등도 좋지 않다. 무엇이든 그 사람에게 매우 유쾌함을 주고 또는 불쾌함을 주는 것이라고 해도, 독자에게는 추호도 동감의 정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 아니다. 한 그릇의 밥으로 유한(幽閒)한 정취를 즐기는 사람을 묘사하는 것이 재미가 있긴 해도 보통의 음식은 되도록 짧게 서술하는 것이 좋다.

어떤 경치 어떤 인간사를 서술할 때 가장 아름다운 곳 또는 더없이 깊게 느끼는 곳을 중심으로 묘사하면 그 경치 그 사건 자체로부터의 활동이 가능하다. 그러나 그 최고의 아름다움과 더없이 깊은 느낌이 있는 곳은 꼭 언제나 큰 곳 분명한 곳 필요한 곳이 아니라, 때때로 가리어서 보이지 않는 곳(物陰; ものかげ)의 한 면(半面)을 나타내는 것이며, 겉에 잘 드러나지 않아 알 수 없음(隱微; いんび) 바로 그곳에 존재하는 것이다.[14] 어둑어둑하여 두려운 숲속에서 한 그루의 동백꽃을 보았다면 매우 아름다운 동시에 유쾌한 느낌이 일어날 것이다. 이때 동백꽃을 중심으로 쓰는 것이 좋긴 해도, 동백꽃을

14) 마사오카시키(正岡子規; まさおかしき)는 언어학과 기호학을 모른다. 그런데도 그 경지에 이르고 있다. 1. 롤랑 바르트(Roland Barthes)의 "Of course, it is not any type. Naturellement, ce n'est pas n'importe quelle parole. 물론 신화는 그저 평범한 형식(랑그)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형식(파롤)이다." 그리고 시니피앙(signifier)과 시니피에(signified)의 중첩결합인 신화(myth)를 상기하라. SIGNIFIED(콘셉트)가 "物陰(ものかげ; 가리어서 보이지 않는 곳, 그늘)과 隱微(いんび; 겉에 잘 드러나지 않아 알 수 없음)"이다. —Roland Barthes(주근옥 역), 오늘날의 신화(한맥문학 통권 226호, 2009.06.25)를 참조하라.

중심으로 하는 것은 반드시 동백꽃을 상세하게 서술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숲속의 어둑어둑함에 대한 두려운 모양을 얼마간 상세하게 서술해서 나중에 동백꽃을 그려낸다면, 한마디로 말해서 분명히 감동을 독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될 것이다. 혹은 벚꽃놀이의 붐빔을 서술하는 것으로도 챠반(茶番)[15], 메카쓰라(目かつら)[16], 벚꽃 비녀, 코

그리고 그레마스(A.J.Greimas)의 기호학을 상기하라. 다음 도표의 제3의 레벨이 "物陰(ものかげ)과 隱微(いんび)"인데, 그 무제약・이율배반・자유의지의 세계는 시각・청각・후각・미각・촉각・정념 등 육경(六境) 모두가 포함된다. 그리고 제4의 레벨(제2극화; semiotics)에서 최상위 인식론적 차원의 총체성의 복합동류체(complex isotopy: 귀납법과 연역법의 결합, 그러면서도 단순한 사실로만 보이는)로 통합된다. 주근옥, 한국문학의 판단중지를 위하여(조선문학 통권 282호, 2014.10.01. 보정본. 한맥문학 통권 231호, 2009.11.25), A.J.Greimas, Structural Semantics(주근옥 역), A.J.Greimas, On Meaning(주근옥 역), Algirdas Julien Greimas・Jacques Fontanille(주근옥 역), The Epistemology of Passions(주근옥 역), Cynthia Whitney Hallett, Minimalism and Short Story(주근옥 역), Warren Motte, Small Worlds—Minimalism in



Contemporary French Literature(주근옥 역)를 참조하라. 2. 後素와도 상통한다. 後素는 後功・餘白・餘韻・토운・神話體系・深層構造・氷山技法(the iceberg technic)이라는 유의어를 가지고 있는데, 어원적으로는 繪事後素와 素以爲絢, 素其位而行에 근거한다. 素는 文質彬彬의 質과 "素猶見在也"의 보이는 것이 유예된 在, 그리고 "素富貴 行乎富貴"의 "어떤 처지에 놓이다"라는 뜻의 素이다. **鄭司農**은 素란 회화의 質 즉 색채의 정신적 표현으로써 後功이라고 한다.朱熹는 絢과 대비하여 보이지 않는 質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四君子인 梅蘭菊竹은 絢이며 眞善美貞은 素, 즉 梅=善, 蘭=美, 菊=眞, 竹=貞이다. 그러나 이것도 보편성이므로 보다 더 개별성이 있는 것을 찾아야 할 것이다. 화가는 이 後素의 원리를 알아야 하고 이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연의 진의를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後素는 老子의 "谷神의 玄牝"과 莊子의 "渾沌의 七竅" 또는 禪에서의 "見山祇是山"의 경지와도 통하는 것으로 보아도 될 것이다. 주근옥, 後素의 美學(대전시단 창간호 1989. 12. 18)을 참조하라. (역자주)

토토이당고(言問団子; ことといだんご)[17], 키누카쓰키(きぬかつき)[18], 이것들의 활력을 극대화하여 상세하게 서술해도 여전히 어딘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 최후에

파출소에서 두 미아가 울고 있다.

라고 하는 어구를 첨가하면 전체가 활동하는 것이 될 것이다. 과장해서 말하면 화룡점정(画龍点睛)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공론(空論)은 효력이 적다. 하이쿠 잡지「호토토기스(ほとゝぎす)」[19]를 본 사람은 이런 종류의 문자(아사쿠사지의 쿠사쿠사, 여자 점쟁이, 제야의 종)[20]에 친숙해진다. 이런 문자를 사용해서 실패한 한 예로 2월 초에 지상잡기란(紙上雑寄欄) 안에 있는 정계(貞鶏)라고 제목을 붙인 것 하나를 예로 든다. (사전에 작자에게 무례를 사과한다). 정계(貞鶏)는 이틀(2주) 계속 썼는데 첫날 분 정도는 허서(虚叙)로서 실서(実叙)가 없고, 허서에서도 때때로 다소의 실서를 섞어서 재미있는 궁리(工夫)가 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매우 평범해서 재미가 없었다. 다음 달 분 두 번째 난(欄)은 실서(결말의 주관적 문자는 좋다)라고 하지

---

15) 차반교겐(茶番狂言; ちゃばんきょうげん): 1. 손짓・몸짓으로 좌중을 웃기는 익살극. 2. 속이 빤히 들여다 보이는 짓. (역자주)

16) 目かつら: 판지에 눈구멍을 뚫어 머리와 눈썹, 속눈썹 등을 그린 얼굴의 상반신만을 덮는 간단한 가면. (역자주)

17) 무코우지마(向島; むこうじま)의 무코우 다리 부근에서 팔고 있는 명물 쥐엄떡. 에도(江戸) 시대가 끝날 무렵에 만들어졌다. (역자주)

18) きぬかつき: 작은 토란을 껍질 채 쪄 그 껍질을 벗겨 먹는 가을의 요리, 안주. (역자주)

19)「ホトトギス」는 합자회사 호토토기스(ホトトギス)가 발행한 하이쿠 잡지. 메이지 1897(明治; めいじ 30)에 마사오카시키(正岡子規; まさおかしき)의 친구 야나기하라교쿠도우(柳原極堂; やなぎはらきょくどう; 작가, 각본, 에세이스트)가 창간했다. 나쓰메소우세키(夏目漱石; なつめそうせき)가 소설 "우리들은 고양이다(吾輩は猫である; わがはいはねこである)", "도련님(坊っちゃん)"을 발표했다. 메이지(明治; めいじ) 시기에 종합문예지로, 타이쇼우(大正; たいしょう)・쇼우와(昭和; しょうわ) 시기에는 보수 하이쿠 문단의 최고 유력지로서의 융성을 과시했다. (역자주)

20) 1. ほとゝぎす(두견새). 2. 浅草寺(あさくさじ)의 쿠사쿠사(くさくさ), くさくさ; 화가 나거나 우울해서 기분이 좋지 못한 모양. 3. 女易者(じょえきしゃ); 여자 점쟁이. 4. 제야의 종; 百八の鐘(ひゃくはちのかね). (역자 주)

만 조금도 재미있지 않아 오히려 장황(冗長)한 느낌이 든다. 첫째로 이 중요한 재미를 모르기 때문에, 두 번째로 작자가 취사 선택의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이 정취(趣味) 없는 글을 만들게 된 것이다. 작자가 혹시 이 사실을 재미있도록 다잡는다면 보통의 사실은 틀림없이 짧게 서술될 것이고, 그 대신 어떤 한두 곳을 상세히 서술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시험 삼아 먼저 평일 두 마리 닭과 가까워진 모양을 실서적(実叙的)으로 상세하게 서술한(원문은 허서적이지만 특별하게 재미있지 않다) 다음에 수탉이 개에게 물린 후에 깃털이 바람에 날리는 것을 상세히 서술하는 것 외에 생략할 수 있는 만큼 생략하여 짧게 해야 한다. 처음부터 끝까지 따로 고루 서술한 글에서도 재미없는, 더구나 사실에 재미가 없는 것은 그대로 당연한 것이 된다.

문체는 언문일치(言文一致) 또는 그에 가까운 문체가 사실(写実)과 적합한 것인가. 언문일치는 쉽게 귀에 들리는 것만을 주로 한다. 정계(貞鷄)의 글과 같은 언문일치의 안에서 부조화하기 쉬운 한자를 사용하는 것은 매우 좋지 않다. 언어의 아름다움을 조롱하는 것과 별도로 그 재미의 실체는 존재한다. 사실적인 언어의 아름다움을 조롱한다면 사실의 정취도 잃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만 할 것이다.

따로 주관적인 한두 구를 삽입해서 객관적인 서술을 하면 재미있게 되기 마련이다.[21)]

---

21) 참고자료: 1. **俳諧大要(正岡子規,** まさおかしき**)**_俳句は文学の一部なり。文学は美術の一部なり。故に美の標準は文学の標準なり。文学の標準は俳句の標準なり。即すなわち絵画も彫刻も音楽も演劇も詩歌小説も皆同一の標準を以もって論評し得べし。(하이쿠는 문학의 일부이다. 문학은 미술의 일부이다. 따라서 미(美)의 표준은 문학의 표준이다. 문학의 표준은 하이쿠의 표준이다. 즉 회화나 조각, 음악, 연극, 시가, 소설 모두 같은 표준으로 논평할 수 있을 것이다). -「日本」: 日本新聞社(明治 28=1895.10.22.~12.31).…Ezra Pound의 渦動主義(Vorticism)에서의 관점과 아주 유사하다.

2. 正岡子規(まさおかしき)의 하이쿠(俳句).
柿(かき)食えば鐘(かね)が鳴るなり法隆寺(ほうりゅうじ).
감을 먹으면 범종이 울리도다, 호오류우지.
いくたびも雪の深さを尋ねけり.
몇 번이고 눈의 깊이를 더듬어 재보고.
枝豆(えだまめ)や月は糸瓜(へちま)の棚(たな)にあり.
가지째 꺽은 풋콩과 달은 수세미외 시렁에 있네.

부기(附記): 연말연시의 보도를 함에 있어서는 모든 허서법(虚叙法)을 채택하고 실서법(実叙法)을 채택하지 않았다면 심히 유감으로 생각한다. 앞으로 어떤 일에든 실서법에 따라 서술할 문장(西大寺会陽記와 같은)[22]을 보내주시기를 간청한다.

ー日本付録週報 메이지(明治; めいじ) 33=1900. 03. 12(월)

*

「日本付録週報」는, 신문 「日本」의 부록으로서 매주 발행되었다. 현재 일요판 같은 것이지만, 이것은 월요일에 발행되었다.

枝豆(えだまめ)や三寸(さんずん)飛んで口に入る.
가지째 꺽은 풋콩이 튀어서 세치 입으로 들어가네.
鶏頭(ケイトウ)の十四五本もありぬべし.
그래도 맨드라미꽃 열 너댓 대궁이나 있구나.
ある僧の月も待たずに帰りけり.
어느 스님, 보름달을 기다리지 못하고 돌아가는구나.
稲妻(いなずま)や桧(ひのき)ばかりの谷ひとつ.
번갯불이여 노송나무뿐인 한 가닥 골짜기.
菜(やさい)の花やぱつとあかるき町はづれ.
유채꽃이 확 번져 환한 변두리의 마을.
門を出て十歩に秋の海広し.
문을 나서서 열 걸음만 걸어도 가을의 난바다. (역자주)

22) 西大寺会陽(さいだいじえよう): 일반적으로는 「벌거벗은 축제(裸祭り; はだかまつり)」로 유명하며, 심야에 본당의 복창으로부터 2개의 보목(宝木; しんぎ)이 투하되면, 웅장한 쟁탈전이 시작된다(오카야마현 지정 무형민속문화재). 정월에 행해지는 수정회(修正会; しゅしょうえ)의 결원행사가 발전했다고 해서 처음엔 부적표인 우옥지(牛玉紙; ごおうし)를 주었으나 서로 빼앗게 되어 약 490년 전부터 지금의 보목을 투하하게 되었다. (역자주)

2021년 제33권 제6호 통권 369호 등록 1989년 8월 30일 등록번호 라-5017 발행 2021년 5월 25일

녹색 환경

月刊 한맥文學

THE HANMAEK-LITERATURE

격레문학의 맥을 이어가는 종합문예지

권두언 사람 중심의 경영 / 갈정웅
초대 시 태양의 수명 外 / 이상규
초대 평론 채만식의 소설 『태평천하』에 나타난 1930년대의 사회상 / 홍정화
초대 번역 서사문敍事文/ 마사오카 시키/ 朱根玉 역

연재 시 이명희 박종문 권영혁
연재 한시 평설 109 한시漢詩 몇 수首 / 권순악
연재 민조시 21 김삿갓 민조시 (21) / 金進中
연작 단편 소설 10 유서有書 / 석도익
연재 난 에세이 54 탐닉과 고통 / 이성보
연재 수필 이연숙 박영길 李淳澤
이달의 시 국승윤 박일소 임현호
이달의 수필 이광옥 박상근

cafe.daum.net/hanmaekl
이메일: hanmaekl@hanmail.net

ISSN 1739-6670
2021
6
369호

月刊
한맥文學
THE HANMAEK-LITERATURE
2021년 6월호
제33권 제6호(통권 369호)

題號 : 鄭旺先
- 한맥문학가협회 명예회장
- 한국문인협회 회원
- 행정고시 합격
- 부산지방국세청장
- 한국화재보험협회 이사장
- 삼남물산주식회사 회장

題字 : 圓亭 裵宗承
- 연희전문대 상과 졸업
- 한국투자신탁(주) 초대 대표이
- 동화 · 제일증권 사장
- 국립현대미술관 초대작가(서
- 원정문연 서실 운영

• 권두언
사람 중심의 경영 갈 정 웅 34

• 연재 한시 평설 109
한시 漢詩 몇 수 首 권 순 악 92

팔선대 외 4편 권 영 혁 86
들꽃의 향기 외 4편 박 종 문 78
초우 외 1편 이 명 희 76

• 연재 시

서사문 敍事文 마사오카 시키 / 朱 根 玉 역 60

• 초대 번역

채만식의 소설 『태평천하』에 나타난 … 홍 정 화 41

• 초대 평론

태양의 수명 외 2편 이 상 규 38

• 초대 시

편집후기

◉ 이달에는 쓰라린 일이 많아서 가슴 아프다. ≪호맥문학≫ 편집위원이셨던 원로시인 이창년 선생님께서 4월30일 오전 3시 24분 타계하셨을 뿐만 아니라, 창원의 공정식 선생님은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잃고 누워계시는지가 여러 달 되었을 뿐 아니라, 오늘 또 한 분의 시인이 중환자실로 실려 갔다.

◉누구나 다 가는 길이겠지만 쓰라리다. 하늘은 우리에게 바람과 구름, 눈과 비, 햇볕 그 모든 것을 다 주는데 우리네 인간은 목숨 밖에 줄 것이 없다고 한 옛 말씀대로 생각하면 당연한 일이겠지만 백년도 함께 못한 인연이 아쉽다. 아무튼 7월호에는 추모시를 모아서 게재해 볼까한다. 많은 호응을 당부 말씀드린다.

◉이창년 고인의 장례식장에는 한국문인협회와 국제펜 한국본부에서 보내주신 조기를 비롯해서 조화들이 보내왔고, 호맥문학 회원들의 조문이 많았다. 부의가 많아서 감사드린다.

이달에도 변함없이 경향 각처에서 옥고를 보내주셔서 감사드린다. 〈眞〉

月刊 호맥文學

2021년 6월호(통권 369호)

발 행 인/김영선 기획실장/박의균
주 간/갈정웅 편집부장/염한직

전라남도지회 회장/김유명
강원도지회 회장/심상순
제주도지회 회장/문경훈
광주지회 회장/유해상
인천시지회 회장/주창렬
대구·경북지회 회장/김종관
남해군지회 회장/김경남
의정부지회 회장/김경식
동두천시지회 회장/향 광
호맥양주호명문학회 회장/장영준
구미지회 회장/수 월
포항시지회 회장/김영자
양주시지회 회장/윤홍상
북미주지회 회장/강경식
이사-김현길 임만빈 신경효 이춘혜

03636
서울·서대문구 통일로 479-5(홍제동) 호맥문학
전화 : 725-0939 · 725-0935
FAX : 732-8374
야간 : 725-0939 · (H)010-9186-8166

• 온라인번호
기업은행 : 087-012115-01-014
예금주 : 김 영 선
우체국 : 013011-01-000549
예금주 : 한맥문학사

발 행 처/호脈文學社
인 쇄 처/삼문인쇄
인쇄발행/2021년 5월 25일

■등록 1989년 8월 30일 등록번호 라-5017
■본지는 잡지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한다

값 10,000원